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YahooFinance: JP모건, “미국 아주 천천히 ‘파산’중”
- Bloomberg: 필라 연준 총재 “올해 금리 0.25% 두차례 인하 선호”

[미국 금융]

- WSJ: 골드만삭스, 활발한 거래 성사로 수익 급등
- Bloomberg: 씨티, 각 부문 매출 상승...인건비는 상승
- Bloomberg: 웰스파고, 3분기 수익 상승

[뉴욕시]

- WSJ: 뉴욕시 오피스 시장 다시 호황...가격은 역대 최고

[미 행정부]

- Bloomberg: 연방 셧다운으로 10월 소비자 물가 보고서 ‘증발’

[무역전쟁]

- Bloomberg: 중국, 미국내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 WSJ: 한국, 미국 조선소에 신규 선박 12척 주문

[자동차]

- CNBC: K자형 경제: 신차 가격 5만 달러 돌파...자동차 대출 연체율은 증가

[글로벌 경제]

- WSJ: IMF, '무역긴장으로 세계 경제 어두워' 전망...내년 미 GDP 2%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GM, 16억 달러 손실 입어...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로

[미국 경제]

YahooFinance: America is ‘going broke slowly’ says JPMorgan, as national debt balloons and tariff revenue looks shaky
JP모건, “미국 아주 천천히 ‘파산’중이다”

- JP모건은 이번주에 경고했다. 미국이 파산 중인데 그 속도가 아주 늦어 시장은 아직 공황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 이 기관에 따르면 국가 부채는 어느정도 경제 성장이 이뤄진다 해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즉, 현재 미 공공부채는 37조 8천억 달러에 이자만도 1조2천억 달러로 GDP대비 부채 비율은 이미 99.9%라는 것.

- 또한 관세 수입과 일시적인 적자 완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선택이나 경기 둔화가 재정상황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은 미국이 천천히 파산하기 전에 자산을 분산 투자할 것을 조언했다.

YahooFinance 기사

Bloomberg: Fed's Paulson Favors Two More 2025 Cuts, Looking Through Tariffs

필라 연준 총재 “올해 금리 0.25% 두차례 인하 선호”

-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인 Anna Paulson는 올해까지 0.25%로 두 차례 더 금리를 인하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 그는 통화정책이 소비자 물가 상승에 대한 관세의 여파를 감안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 이유로 관세로 인한 비용이 물가에 여파를 주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 그는 미 경제가 3분기에도 계속 성장하겠지만 성장을 뒷받침할 만한 기반이 좁은 상황이며 일부 비즈니스 관계자들은 향후 수요가 어디에서 창출될지 의문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Goldman Sachs Profit Surges, Fueled by Dealmaking Boom 골드만삭스, 활발한 거래 성사로 수익 급등

- 골드만삭스의 3분기 수익이 37% 증가한 41억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의 초과한 수치다.
- 매출은 20% 늘어난 1백51억8천만불로 늘었는데 금융 거래가 크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 수치 또한 예상 수치를 넘어선 수치.
- 투자은행 매출은 동기간 42%, 그리고 채권 인수 서비스 수익은 30% 증가했다.

WSJ 기사

Bloomberg: Citi Revenue Beats in Every Division as Compensation Costs Climb

씨티, 각 부문 매출 상승...인건비는 상승

- 씨티그룹은 총매출이 3분기에 9% 상승했다. 이 회사의 시장, 뱅킹, 서비스, 자산관리, 리테일 부분의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오늘 화요일 발표했다.
- 주식과 고정 수입 상품의 거래도 예상치를 뛰어 넘은 56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다.
- 비용도 증가했는데 최근에 많은 인재를 채용했다.

Bloomberg 기사

WSJ: Wells Fargo Third-Quarter Profit Rises 웰스파고, 3분기 수익 상승

- 웰스파고도 3분기에 수익이 9% 늘어난 55억9천만 달러에 매출은 5% 증가한 2백 14억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 이 기간은 연준이 6월 초에 자산 제한없이 운영된 첫 분기 였다. 연준은 그동안 이 은행의 지배구조 문제와 내부 통제 미비 등을 제재하기 위한 규제 조치를 취했었다.
- 웰스파고는 웰스파고는 유형 보통주 자본수익률(return on tangible common equity, ROTCE) 목표를 기존 15%에서 17%~18%로 올렸다.

WSJ 기사

[뉴욕시]

WSJ: The New York City Office Market Is Roaring Back, and It's Pricier Than Ever

뉴욕시 오피스 시장 다시 호황...가격은 역대 최고

- 맨해튼의 오피스 시장이 20년 만에 가장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미국 내 어떠한 다른 지역보다 가장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다.
- 기업들은 2025년 첫 9개월 동안 맨해튼에서 약 2,320만 제곱피트의 추가 사무실 공간을 임대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임대된 신규 업무 공간 중 가장 큰 규모이다.
- 뉴욕 근로자들의 사무실 복귀가 늘어나고 현대식 사무실 공간에 대한 금융권 기업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 2025년 현재까지 평방피트당 100달러 이상인 오피스에 대해 143건의 임대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2024년 체결된 총 계약 건수를 이미 넘어선 수치이다.
- 그러나, 맨해튼의 공실률은 여전히 14.8%로, 2019년 4분기 8.2%의 약 두 배에 달 한다. 오래된 건물 중 상당수는 관리 및 보수 비용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WSJ 기사

[미 행정부]

Bloomberg: US Shutdown Threatens to Erode Quality of Important Inflation Data

연방 셧다운으로 10월 소비자 물가 보고서 '증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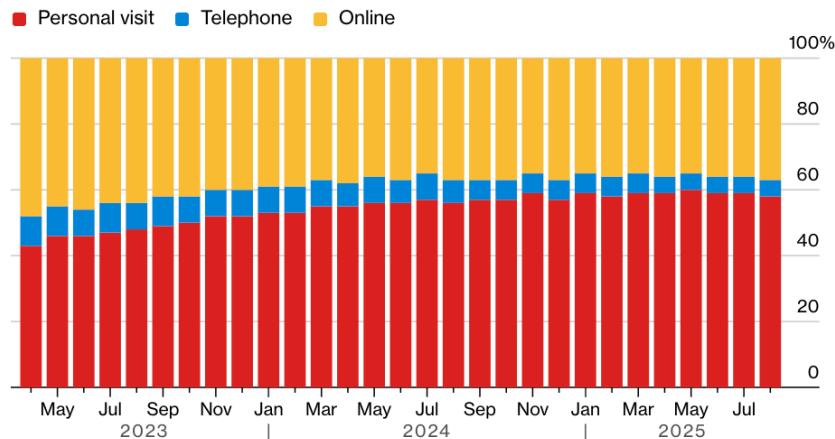
- 연방정부는 셧다운이 계속되면서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가 밝혀지지 않아 정책 결정자, 이코노미스트, 투자자들의 10월 물가 보고서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
- 연방노동국은 10월 1일부터 셧다운 아래 새로운 물가정보를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집약적인 업무이다. 즉, 8만개의 품목 가격을 파악하기 위해 일일히 방

문해서 집계해야 하는 업무다.

- 이에 따라 물가 수치가 충분히 현실에 반영되지 않아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면 다른 물가 지수나 수치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다.

US CPI Still Heavily Relies on In-Person Data Collection

Personal visits have made up nearly 60% of collection in past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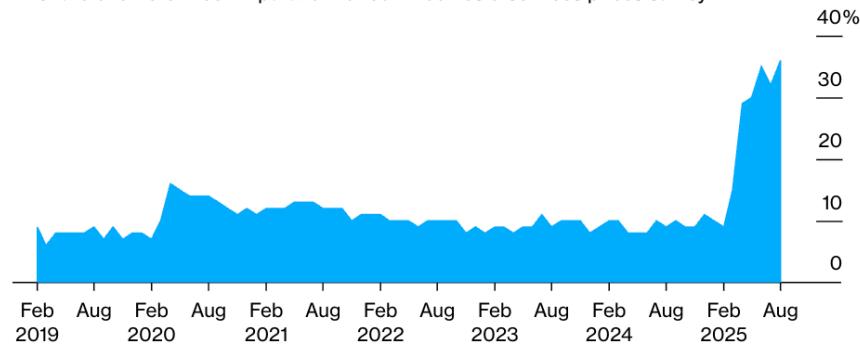
Sou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Note: Reflects methods for commodities and services survey. Publication of collection modes data to be discontinued Nov. 13 with Oct. CPI report

Filling in the Blanks on CPI

BLS relying more on imputation technique with less data collection

■ Share of different-cell imputation for commodities & services prices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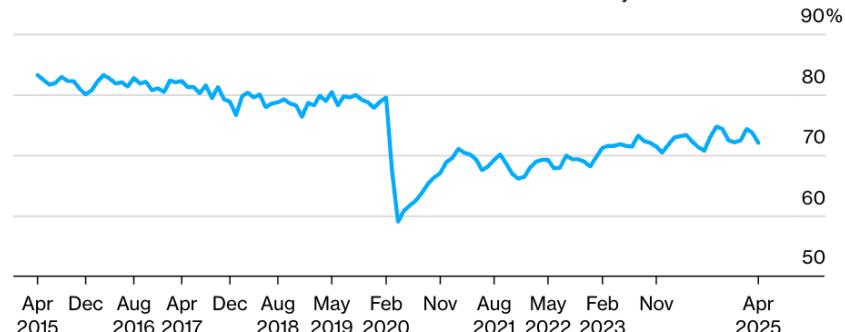
Sou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Note: Data represent share of imputed prices that rely on different cell imputation

CPI Collection Rate Has Fallen to Around 70%

Reflects proportion of data successfully collected for key metrics

■ Collection rate at final release for commodities and services survey



Sou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Note: CPI housing is measured through a different survey

Bloomberg 기사

[무역 전쟁]**Bloomberg: China Escalates US Trade Fight With Curbs on Shipping**
중국, 미국 내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

- 중국 정부는 한화오션의 미국 내 5개 자회사를 제재했다. 이를 기업이 중국 해운업계에 관한 미국 조사에 협력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발표했다. 이 제재로 인해 이들 회사와 중국 기관, 개인 간의 거래와 협력이 금지되며, 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과 복잡한 산업 전반의 긴장을 반영하는 조치로 보인다.
- 이들 회사들은 한화수석필리조선,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수석필리조선, HS USA홀딩스 등이다. 특히 지난해 한화그룹이 1억 달러를 투자해 인수한 한화필리조선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Bloomberg 기사

WSJ: South Korea Ordered 12 New Vessels from a U.S. Shipyard. Now Comes the Hard Part.**한국, 미국 조선소에 신규 선박 12척 주문**

- 한화그룹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8월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12척의 신규 선박에 대한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주문을 발표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 한화그룹에 따르면, 12척의 선박 중 LNG 운반선 2척은 거의 한국에서 제작될 예정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상업용 조선업을 미국으로 다시 유치하고자 이 투자를 추진했으나, 현재 미국에서 원양 선박을 제작하는 비용은 중국이나 한국에서의 제작 비용의 약 4~5배에 달한다.
- 한화는 이번 투자를 통해 신규 유조선 고객을 유치하고, 미국 선원을 배치해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전했다.

WSJ 기사

[자동차]**CNBC: K-shaped cars: New vehicle prices top \$50,000 while auto loan****delinquencies keep rising****K자형 경제: 신차 가격 5만 달러 돌파...자동차 대출 연체율은 증가**

- 미국의 부유층은 계속 이익을 얻는 반면 저소득층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일명 “K자형 경제”가 자동차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지난달 신차 평균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돌파했는데,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자동차 대출 연체율은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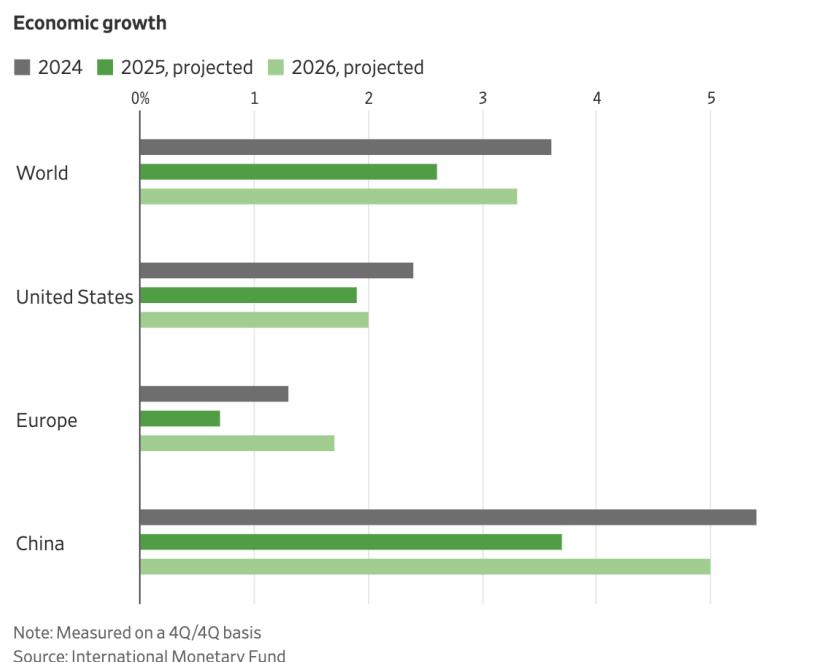
- Cox Automotive의 애널리스트 Erin Keating에 따르면, “오늘날 자동차 시장은 부유층 가구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판매 전반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전했다.
- 지난달 자동차 대출 연체 및 채무 불이행이 계속해서 증가했는데, 특히 FICO 점수가 620점 미만인 소비자에게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Fitch Ratings는 8월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의 6.43%가 60일 이상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월에 기록된 역대 최고치 6.45%와 비슷한 수준이다.
- 이코노미스트들은 이에 관해 미국 경제가 점점 더 “K자형”으로 변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소비자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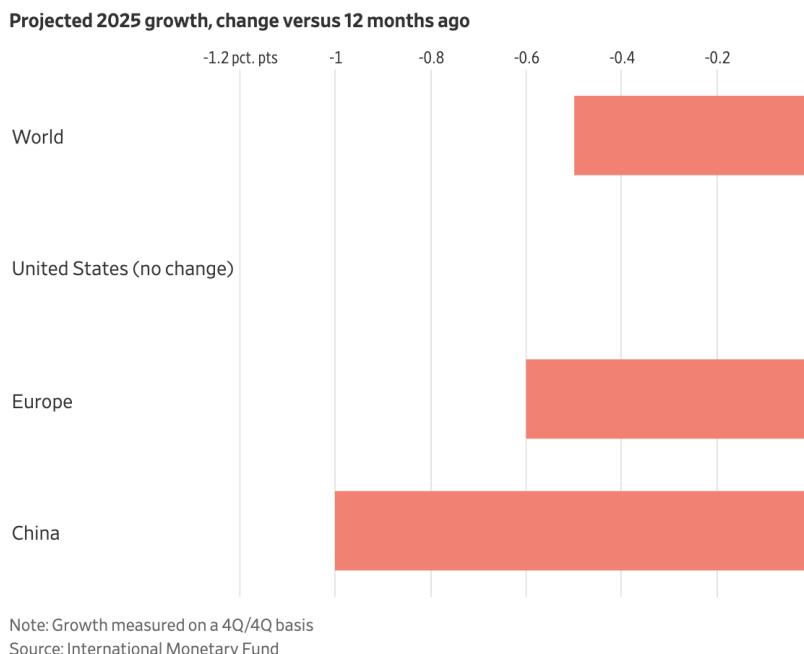
CNBC 기사

[글로벌 경제]

WSJ: Trade Tensions Weigh on IMF's Outlook for Global Economy IMF, ‘무역긴장으로 세계 경제 어두워’ 전망...내년 미 GDP 2%

- IMF가 최근 전망 보고서에서 관세, 인플레, 중앙은행의 독립성 약화 등의 요인이 세계 경제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 IMF는 올해 세계 경제가 4분기 대비 2.6%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는데, 이는 7월 전망치인 2.7%보다 하향 조정된 수치이고, 작년 3.6% 성장률보다 둔화한 것이다.
- 특히,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1.9%로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7월 IMF의 예측치인 1.7%보다 높지만, 작년에 전망한 2.4% 성장률보다는 낮다. 내년 미 경제 성장을 2%로 전망했다.
- IMF의 이코노미스트들에 따르면, 관세로 인한 무역 전쟁을 기점으로 다른 주요 경제국들도 전망이 어두워졌다. 특히, 유럽, 영국, 캐나다의 성장 전망은 최근 몇 달 동안 대체로 변동이 없거나 하향 조정되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GM Takes \$1.6 Billion Charge on Trump-Induced Pullback From EVs GM, 16억 달러 손실 입어...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로

- GM(General Motos)가 트럼프의 전기차 세액 공제 종료 이후 전기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면서 16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 이들은 전기차 생산 능력을 소비자 수요에 맞춰 재조정할 시에는 12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 밝혔는데, 나머지 4억 달러는 전기차 투자와 관련한 계약 해지와 관련이 있다.
- GM 측은 “최근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전기차 구매에 대한 인센티브가 종료되고 배출 규제는 완화되면서 전기차 도입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 한편, GM은 자사의 EV 모델을 생산하는 테네시 공장의 가동 중단을 계획하고 있으며, 1월부터 5월까지는 생산량을 2교대에서 1교대로 줄일 예정이다.

Bloomberg 기사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